

1940년, 부산의 식민성과 반식민성*

이재봉**

차 례

- | | |
|------------------------------|-----------------------------|
| 1. '노다이 사건'과 <1940년 부산> | 3) 기억의 삭제 혹은 과잉과 역사수정주의 |
| 2. 부산이라는 식민도시, 추억과 낭만의 회상 공간 | 3. 1940년 '노다이 사건'의 양가성 |
| 1) '조선독립만세'라는 불합리한 슈프레히코르 | 1) 제국의 논리와 저항의 논리, 뒤섞이는 구호들 |
| 2) 역사와 편지, 그리고 논픽션 노벨이라는 장르 | 2) '조선독립만세'라는 구호의 상징성 |
| | 4. 식민과 반식민의 해방공간, 1940년의 부산 |

국문초록

1940년 11월 23일 부산공설운동장에서는 제2회 전력증강국방경기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 부당한 심판으로 일본계 학교인 부산중학교의 우승을 선언하자, 이에 반발한 조선계 학교인 동래중학교와 부산제2상업학교 학생들이 반발하여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고 당시 심판장이었던 '노다이 켄지(乃台謙治) 대좌'의 저택을 습격한다. 이 사건은 흔히 '노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수

이 사건'이라 불리고 있는데, 약 200여 명의 학생이 체포되고 15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65명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기에 이른다.

이 사건은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에 잠시 언급되어 있을 뿐, 국내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서사화한 작품은 없다. 그런 점에서 이이오 켄시(飯尾憲士)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1940년 부산>이라는 작품은 특이하다. 그는 이 작품에서 카가야 타미오(可賀谷民夫)와 A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노다이 사건'의 실상을 추적한다. 그들의 부산중학 동급생인 B라는 인물이 쓴 『독립운동을 목격』이라는 글에 의문을 품은 A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찾아내고 실제 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 '조선독립만세' 등이 외쳐지지 않은 작은 소란일 뿐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논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이오 켄시는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고 편지를 활용하며 논픽션 노벨이라는 장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당시의 부산은 그들의 중학 시절 추억과 낭만이 서린 아름다운 식민 공간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이른바 역사 수정주의에 기대는 것이었고, '기억'을 의도적으로 축소/삭제 또는 과잉 해석하여 '기억을 암살'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정한 역사적 사실은 한두 마디로 그 성격이 규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라는 형식 자체가 전쟁을 수행하는 제국과 식민의 논리로 가득 찬 것이었고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 역시 이런 논리에 노출되어 그것을 알게 모르게 내면화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부당한 심판에서 비롯된 학생들의 항의와 가두 행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 시켰고, 이 과정에서 외친 학생들의 구호는 모순되고 양가성을 지닌 복합적인 것이었다. 나아가 제국의 논리에 무비판적인 구호를 외치기도 했지만, 천황을 모욕하고 기미가요를 훼손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폭된 감정은 결국 당시로서는 가장 위험하고 급진적이라 할 수 있는 '조선독립만세'까지 외치게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1940년 11월 23일 일어난 이른바 '노다이 사건'은 제국과 식민의 모순이 만들어

낸 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날의 부산은 억압된 감정과 분노를 풀어내는 한바탕 축제의 장이었고 식민과 반식민이 공존하는, 모순되고 양가성을 띤 구호들이 난무하는 걱정과 혼란의 해방공간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 부산, 노다이 사건, <1940년 부산>, 식민성, 반식민성, 조선독립만세, 역사 수정주의, 기억, 축제, 해방공간

1. ‘노다이(乃臺) 사건’과 <1940년 부산>

‘부산’이라는 도시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식민성’ ‘식민도시’ 등은 거의 빠지지 않는 수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동래에 소속되어 있던 작은 포구였던 부산은, 개항 이후 여러 가지 식민지 시설이 들어서면서 초량과 용두산 일대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항만과 철도의 기능이 강화되고, 경찰서, 전신국, 은행, 병원 등의 식민지 지배 시설들이 건설되면서 부산은 기존의 동래와는 구분되는 식민도시로 형성되어 갔다.¹⁾ 이처럼 부산은 식민화 과정에서 탄생했고, 이방인과 타지 사람들이 손쉽게 이동·거래·거주할 수 있는 개방성²⁾을 지닌 식민지 접경도시³⁾로 성장했던 것이다. 부산의 이런 모습

1) 이에 대해서는 구모룡, 『부산 : 식민도시와 근대도시를 넘어서-부산연구의 문화론적 연구』, 『인천학연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8. 10~14쪽 참조.

2) 남송우, 『부산 지역문화 속에 나타난 부산성의 모색』, 『인문사회과학연구』6,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6. 76쪽.

3) 이런 성격을 허병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때 현재의 서를 대변하는 부산이라는 장소는 식민지처럼 지배와 피지배라는 극도의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이질적인 문화들이 서로 만나고 충돌하고 맞서 싸우는 사회적 공간들을 의미하는 접경(contact-zone)이 된다. 접경이라는 관점이 강조하는 것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가 분리가 아니라 종종 급진적으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공존, 상호작용, 서로 겹치는 이해와 실천이라는 점이다.”, 허병식, 『식민지의 접경, 식민주의의 공백-장소로서의 부산』, 『한국문학연구』4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

을 문학 작품에서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인직 등의 신소설이나 이광수의 《무정》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에서도 이런 모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만세전》의 이인화의 눈에 비친 부산은 여러 논자들이 이미 지적하기도 했다.⁴⁾

그런데 어떤 도시의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한 연구자가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도시는 ‘다양성’과 ‘이질성’⁵⁾을 떨 수밖에 없으며, 어떤 대상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어떤 측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지닌 성격을 온전히 밝혀내어 특정하게 규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1940년 11월 23일, 부산 공설운동장(현재의 구덕운동장)에서 있었던 사건과 이를 둘러싼 서사를 통해 당시 부산의 모습을 추적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출발이며 목표이다. 흔히 ‘노다이(乃台) 사건’⁶⁾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을 우선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1940년 11월 23일 부산공설운동장에서는 이른바 제2회 ‘전력증강 국방

소, 2011. 14쪽.

- 4) 조갑상, 『검문과 감시, 그리고 일본인의 땅』, 『소설로 읽는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8, 64~71쪽, 박훈하, 『부산의 공간생산과 근대적 주체 형성과정』, 이경·박훈하·김용규, 『문화의 풍경, 이론의 자리』, 비온후, 2003, 224~226쪽, 허병식, 위의 논문, 15~18쪽, 서재길, 『『만세전』의 탈식민주의적 읽기를 위한 시론』, 사에구사 도시카스 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127~151쪽 등을 들 수 있다.
- 5) 박훈하는 위의 글에서 ‘부산이라는 도시공간은 다양한 이질성이 상호갈등하며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박훈하, 위의 글, 222쪽) 이런 지적은 비단 ‘부산’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 6)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노다이 사건’이 가장 일반적이고, ‘부산학생운동’, ‘부산학생사건’, ‘부산공설운동장 항일의거’, ‘부산학생항일운동’, ‘부산학생항일의거’, ‘11·23 사건’ 등이 서로 뒤섞인 채 사용되고 있다. 이런 명칭은 물론,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는 태도에서, 맨 처음 명명되었던 ‘노다이 사건’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경기대회'가 개최된다. 여기에는 일본계 학교인 부산중학교와 부산제일상업학교(이후 경남상업고등학교로 되었다가 현재 부경고등학교), 조선계인 동래중학교와 부산제이상업학교(이후 부산상업고등학교로 되었다가 현재는 개성고등학교) 등⁷⁾이 우승을 다투었는데, 심판장이던 '노다이 대좌'를 비롯한 심판진들의 부당한 판정으로 부산중학교의 우승이 선언된다. 이에 격분한 동래중학교 및 부산제이상업학교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가두행진을 하다가 급기야는 노다이 집에 돌을 던져 유리창 등을 깨버린다. 이 일로 두 학교에서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체포되었고 그중 동래중학교 학생 9명, 부산제이상업학교 학생 6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퇴학(동래중학교, 8명, 부산제이상업학교, 12명), 정학(동래중학교 34명, 부산제이상업학교 10명) 견책(부산제이상업학교 1명) 등의 처벌이 이어

7) 실제 참가 학교 수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1940년 부산>에서는, 부산중학교, 부산제일상업학교, 동래중학교, 부산제이상업학교 등 4개교로 못 박고 있고, 강대민은 애초, 이 4개교를 포함하여 마산중학교, 진주중학교, 진주농고, 울산농고, 동래고녀, 부산향고녀, 부산고녀, 삼도고녀, 김해농고, 밀양농잠, 마산상업, 통영수고, 입정상업, 초량상업 등의 학교가 참여했다는 입장(강대민, 『부산지역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2003, 190쪽, 이런 입장은 사실 『동래고등학교 100년사』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한다.)에서 부산중학교, 부산제일상업학교, 동래중학교, 부산제이상업학교 등 4개 학교가 참여 했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강대민, 『노다이 사건 구술 재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4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225쪽). 실제 이 사건에 가담했던 문인갑은 부산중학교, 부산제일상업학교, 동래중학교, 부산제이상업학교의 4개 학교에 진주, 마산, 김해 등 5년제 농업학교가 참가했다고 하며(문인갑, 『<노다이(乃台) 사건>의 回顧』, 『부산교육』194, 부산시교육위원회, 1978, 8~12쪽), 김석희는 부산중학교, 부산제일상업학교, 동래중학교, 부산제이상업학교를 포함하여 모두 18개 학교가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다.(김석희, 『일제말기 부산의 항일운동-부산동래고등학교사를 중심으로』, 『군봉』40, 동래고등학교, 1992, 87쪽). 이 외에도 논자에 따라 참가 학교 수는 일정하지 않은데, 이런 혼란은 강대민이 이미 지적(강대민, 위의 논문, 225쪽)하고 있듯이, 11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김해에서 실시된 '경남학도연합군사대연습'에 참가한 학교와 '전력증강국방경기대회'에 참가한 학교에 대한 기억이 뒤섞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진⁸⁾, 당시로서는 과장이 컸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 국내에는 없는 듯하다. 물론 이병주가 《관부연락선》에서 잠시 언급하고 있지만, 이 사건이 서사의 중심도 아니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파고 든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당시 여기에 가담했던 당사자들의 구술에 의지하여 전해지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특정한 학교의 학교사로 기술되거나 이를 민족적 저항의 역사로 확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이이오 켄시(飯尾憲士)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1940년 부산>이라는 소설은 특이하다. 이 작품은 1993년 『문예춘추(文藝春秋)』에 발표되었고, 이후 1995년 다른 세 편의 소설과 함께 《1940년 부산》이라는 소설집으로 묶여져 출간되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약력을 참고하면, 1926년 태어난 이이오 켄시는 오이타현(大分縣)에서 출생했고, 오고문(五高文) 졸업 후 육사에 진학(60기, 참고로 일본 육사는 1945년 패전 때까지 61기생까지 재학했다고 한다⁹⁾)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력이 말해주듯 그는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다. 오히려 그는 《1940년 부산》이라는 소설집에 묶인 다른 작품들¹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참전 경험을 주로 소설화하고 있다. 논픽션 노벨이라는 명목으로 창작된 이 소설은 1993년 발표되었기에 1940년과는 무려 50년이 넘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억’이 문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8) 처벌에 대해서는, 군봉별책특집, 『乃台事件回想錄』, 1964. 6~7쪽,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동래고등학교동창회, 2002, 218~220쪽 및 부산학생사건정사편찬위원회, 『부산학생사건정사』, 아성출판사, 1967, 14~18쪽에서 정리 및 인용. 실형을 선고 받은 학생들 중, 동래중학교의 김재한, 부산제이상업학교의 이인희, 김중배 등은 미성년자로 형의 집행이 보류되어 석방되었다고 한다.

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6109&cid=40942&categoryId=31745>, 참조.

10) 이 책에는, <군조의 죽음(軍曹の死)>, <손(手)>, <혼들에게(魂たちへ)> 등 세 편이 더 실려 있다.

물론 이 소설이 여기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소설은 우선, 강대민 편, 『항일 학생운동의 재조명』(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0)에 자료로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동래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발행하는 동래고등학교 동창회보 2007년 8월 1일부터 2회에 걸쳐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강대민의 앞의 책에는 그저 소설 원문만 실려 있을 뿐 작가나 서지사항 등 아무런 정보가 없다. 기본적인 정보도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무런 해설이나 설명도 없기 때문에 왜 이 소설을 자료로 덧붙였는지 그 의도조차 짐작하기 어렵다. 더욱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은 동래고등학교 동창회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오독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일본 학생이 바라본 동래고 노다이 사건>이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이 간략한 소개가 덧붙여져 있다.

아래 글은 1940년 부산공설운동장 노다이 사건이 일어나던 해 카가야 타미오(可賀谷民夫) 전 일본인 학생이 당시 부산중학교(현 부산고) 재학 시절 노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고들은 글을 일본 최 장수 잡지(1923년 창간)인 문예춘추(文藝春秋)에 발표한 『1940년 부산』이란 글 중 노다이 사건과 관련된 글을 76회 김신강 조부 김해영 선생이 번역한 내용을 안대영 역사 관장이 정리하였다.¹¹⁾

우선 위 글에 등장하는 카가야 타미오(可賀谷民夫)는 실재하는 부산중학교 졸업생이 아니라 소설 속의 허구적 인물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소설 중 일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노다이 사건’ 자체를 전면적으로 소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일본인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일본인 학생까지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서술자의 태도이다. 이 경우 ‘노다이 사건’은 당시 적국의 학생에

11) 『일본 학생이 바라 본 동래고 노다이 사건』, 『동래고등학교 동창회보』, 2007년 8월 1일.

계까지 기억되고 있는, 동래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앞으로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1940년 부산>이라는 소설은 자랑스러운 저항의 서사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이오 켄시의 <1940년 부산>이라는 소설과 여기서 표상되고 기억되는 당시 부산의 모습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자료를 포함한 한국 측의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여 1940년 부산이 과연 그들이 기억하는 모습과 일치하는지를 따져 보고자 한다.¹²⁾

2. 부산이라는 식민도시, 추억과 낭만의 회상 공간

1) '조선독립만세'라는 불합리한 슈프레히코르

<1940년 부산>이라는 소설의 서사는 카가야 타미오가 약 50년간 연락이 없었던 A에게서 뜻하지 않는 편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특이한 것은 A라는 인물이 카가야 타미오에게 보내는 편지가 소설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 편지의 내용을 제외하면 이 소설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건은 전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카가야 타미오의 가족이 잠깐 소개되기는 해도, 이들이 등장하는 것은, 새해를 맞아 집에 오거나(시내에서 은행에 다니는 아들), 선물을 보내오는 것(오사카로 시집간 딸) 등으로 아주 잠깐 얼굴을 내밀 뿐이다. 더욱이 카가야의 부인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A가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12) 여기서 다시 한 번 명백히 해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이 글은 이른바 '부산성'을 밝히거나 여기에 천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1940년 부산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아주 특별한 사건과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사를 통해 그 당시(좁게는 그날)의 '부산'이 어떠한 공간이었는가 하는 점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A가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보내 온 순서대로 간략하게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가 보낸 편지의 주요내용	카가야의 답신	기타
1신	부산중학 시절의 어떤 일이 '사건'인지 '소란' ¹³⁾ 인지 묻고 싶다는 내용	긍정적으로 답장	
2신	당일 '조선독립만세', '천황제 타도', '침략전쟁을 멈추어라'는 등의 슈프레히코르가 있었는지 의아하다고 함.	자신도 상세히 알고 싶다고 함.	A는 B라는 동급생의 글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다고 함.
3신	『독립운동을 목격』이라는 B의 글을 동봉하면서, 의문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함.	B글의 사소한 오류 지적(1939년→1940). A와 같은 의문이 든다고 함.	B의 글이 동봉되어 있음. 2년에 걸친 A의 조사로 의문이 해소되기 시작함.
4신	다른 학생들은 모두 슈프레히코르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내용 및 '천황제' '침략전쟁' 등은 당시의 용어가 아니기에 B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함.	-	B의 오류를 지적하여 B에게 보낸 편지 및 A와 선후배 몇 사람의 답장 동봉.
5신	동래중학교 출신으로 그 사건에 직접 참여했던 김기준의 편지와 다른 동급생의 편지 동봉.	-	이듬해 봄 편지 도착. '독립만세'에 대해 기억이 엇갈림.
6신	동래중학교 참가자 신용오와 그 회사의 직원인 C도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함.	-	신용오와 C의 편지 동봉. '독립만세'는 없었다고 함.
7신	A가 조선독립만세는 외쳐지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으로 B에게 보낸 편지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B의 편지 동봉.	-	A와 B, 모두 5번 편지 왕래. A가 더 이상 편지는 무의미하다며 마무리.

13) 이 표현을 이이오 켄시는 여기서 '騷動'이라 하고 있지만, 뒤로 가면서부터 '騷騷'라고 표현하는 빈도가 훨씬 많아진다.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 두 단어를 모두 '소란'으로 번역한다.

약 2년에 걸친, 7차례의 편지이고 A의 추급이다. A가 카가야 타미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 B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앞의 세 번째 편지까지만 카가야는 답을 보내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A의 편지를 읽기만 한다. 카가야 자신도 그 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가 답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사실 카가야 타미오라는 인물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A는 집요하다. A는 부산중학교 동창들의 회고록에 실린 B의 글을 보고 패전 후 B의 행적을 추적했을 뿐 아니라, 1955년부터 큐슈의 B가 재직하던 공업학교의 문예지, 제일조선인 간행지 및 큰 출판사의 월간지, 그리고 이번의 부산중학교 회상집 등 네 차례에 걸친 B의 글을 모두 찾아낸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당시의 동창들에게 편지를 통해 묻고 그 편지들까지 모두 복사해서 카가야에게 보낸다. A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에까지 연락해서 당시 실제로 노다이 사건에 가담했던 김기준(金琪俊)¹⁴과 그의 친구 글까지 입수한다. 나아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용오와 당시 동래중학교 수학교사의 아들이며 현재 신용오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C의 편지까지 받아내어 카가야에게 보낸다. 최종적으로 A는 B와 주고받은 편지까지 카가야에게 보냄으로써 2년에 걸친 추급을 마무리한다.¹⁵

14) A는 김기준을, 당시 동래고등학교의 급장이었으며, 자신과는 일본에서 같은 상과대학을 다닌 클래스 메이트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김기준은 실제로 동래고등학교 18회 졸업생이며, '노다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이 때문에 정학 처분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다.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동래고등학교동창회, 2002, 220쪽.

15) 물론 카가야는 A의 추급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B의 글을 실은 큰 출판사를 찾아갈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투고를 그대로 게재한 권위 있는 월간지의 의향을 물으러 A는 노구를 이끌고 편집책임자를 만나러 가게 될 것이라고 카가야는 생각했다.(投稿をそのまま掲載した権威ある月刊誌の意向を問いに、Aは老軀をおして編輯責任者に会に行くことになるだろう、と可賀谷は思った。), <<1940年釜山>>(문예춘추, 1995), 138쪽. 앞으로 이 작품을 인용할 때는 () 안

A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B의 글이 틀렸음을 입증하려는 이유는 “전쟁을 수행하는 시국 아래, 조선독립만세라는 수수께끼의 슈프레히코르가 있었다고 하는 **불합리한 사상(事象)**(138쪽, 강조-원문)”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문자로 기록된 잘못된 문자로 바로잡아야” 하고 “과거의 일을 미화고양”해서도 안 되며, “역사의 사실은 정확하게 발표하고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¹⁶⁾

물론 B의 글에 기본적인 몇 가지의 오류가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첫 번째가, 노다이 사건이 1939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카가 야도 지적했고 A도 지적하여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B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 대회는 1939년 시작되었고, ‘노다이 사건’이 일어난 1940년의 대회는 제2회 대회였다는 점에서 B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두 번째 오류 역시 사소한 것으로 ‘노다이 사건’이 일어난 전력증강국방경기대회가 아사히신문사 주최 전국 중등학교 야구대회 지구 예선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이 야구대회의 상세한 내용을 파헤쳐 전달함으로써 역시 A는 B의 시인을 이끌어낸다. 세 번째 오류는 두 학교 학생 80여 명 가까이 체포되고 60여 명이 퇴학당했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 역시 퇴학자 수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김기준의 편지를 통해 밝혀낸다. 그렇지만 처음 체포된 학생들이 200명이 넘었다는 사실¹⁷⁾은 밝혀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A의 주된 관심은 이것이 아니다. A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에 쪽수만 명기한다.

16) 원문은 다음과 같다. “戦争遂行の時局下に、朝鮮獨立万歳なぞのシュプレヒコールがあつたなどという不合理な事象を、Aは認めるわけにはいかなかったのである.”(137쪽), 그리고 C는 A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文字にした誤りは、文字を以て訂正すべきでしょう。余りにも無責任であり、怒りを覚えます。過去の出来事を美化高揚すべきではありません。歴史の事実は、正確に発表すべきであり、歪曲してはならないです.»(130쪽.)

17) 이 점은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부산학생사건정사』, 『乃台事件回想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은 B의 글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폐회식에 전원 운동장에 집합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동래중학교와 부산제이상업학교 학생은, 관객석(응원석)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관객석에 진을 친 조선인 학생들은 그곳에서 심판의 부당함을 엄중하게 공격했다. 그러는 사이 큰 슈프레히코르로 되어 「조선독립만세」, 「천황제 타도」, 「침략전쟁을 그만 두라」라고 부르짖었다. 「천황제 타도」는 「타도천황」이었던 듯한 느낌도 있다.(108쪽)

B는 폐회식에서 관객석에 앉은 학생들이 모두 함께 “조선독립만세, 천황제타도, 침략전쟁을 그만 두라”고 외치는 구호를 들었으며 이 때문에 자신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본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반도 남단의 부산에서, 소위 황기 2,600년을 기념하는 해여서 황국 의식이 무엇보다 드높았던 시기에, 당시 17세의 학생들(당시 최고 학년이던 5학년이었고 이들이 17세였다)에게까지 독립운동이 이렇게 깊이 침투해 있는 사실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B는 이 사건이 “슈프레히코르에 있는 것처럼 목표를 명확하게 드러낸 투쟁”(109쪽)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대로라면 노다이 사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항일독립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게 된다. 그런데 A는 1940년이라는 비상시국에서 그와 같은 급진적인 구호가 가능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은, 전시 동원체제를 식민지 정책으로 추진한다. 그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조선이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일부이며, 일본의 한 지방이라는 이른바 ‘내선일체’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조선을 일본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조선인의 신체와 정신을 전쟁에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식민지 말기에 추진된 ‘동아신질서론’, ‘신체제론’¹⁸⁾ 등의 근거가 여기에 있었고, 창씨개명, 조선어

18) ‘동아신질서론’, ‘신체제론’ 등은 중일전쟁 이후 2차 고노에(近衛) 내각에 의해

폐지 등 식민지 말기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이 과정에서 시행된다. 그러므로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은 더 이상 위험한 외부가 아니었고 국민총동원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서 전국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들고 있었다. 거기다 식민지 말기로 가면서 사상 검속 등이 점점 강화되고 조선은 전체가 하나의 관옵티콘처럼 되어 ‘독립’이란 너무나 위험하고 불경한 언어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A의 의문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A는 “그 당시 『조선독립』은 부르짖을 수 있었는가”¹⁹⁾하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한다. 물론 이 의문 속에는 1940년이라는 시점에서 조선독립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대답이 미리 예비 되어 있다. 더욱이 A는 소설의 시작 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카가야 타미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부산중학생이었던 시절에 일어난 일, 그것은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소란”이라 불러야 하는지²⁰⁾(98쪽)”하는 구절에서 이미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A의 노력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천황제, 침략전쟁이라는 말은 전후에 유포된 것으로 전시 중인 1940년 부산에서 외쳤”(119쪽)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합리적인 근거로, B로부터 “『침략전쟁』이라고 쓴 것은 『제국주의 전쟁』의 잘못”(120쪽)이라는 답을 받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B가 ‘침략전쟁’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그의 전체적인 논리가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B는 A와의 편지에서 자신의 입장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는다. A는 카가야에게 보내는 마지막 7번째 편지에서, B

제창되었다. 그 진행과정 및 문화적 의미 등에 대해서는 요네타니 마사후미(米谷匡史), 『日中戦争期の天皇制-『東亞新秩序』論・新體制運動と天皇制』,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외, 『總力戰下の知と制度1933-55年』1, 近代日本の文化史7, 岩波書店, 2002, 258~294 참조.

19) その時, 『朝鮮獨立』は叫ばれたのか 이는 책의 표지에 커다랗게 쓰여져 있다.

20) 원문은 다음과 같다. “釜中生でありました頃に起きましたこと、それは“事件”としてうけとめるべきか、あるいは單なる“騷動”と呼ぶべきものなのか.”(98쪽)

와 주고받은 편지 5통을 동봉하는데, 이 편지들에서 B는 거듭된 A의 강한 질책과 수정 요구에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A는 그런 슈프레히코르는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생각을 주고받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버린다.

A가 ‘조선독립만세, 침략전쟁, 천황제 타도’ 등의 슈프레히코르가 없었다고 하는 근거는, 우선 당시 부산중학교에 다녔던 선후배들이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실제 사건에 가담한 동래중학교의 김기준과 동기생인 박순홍의 글에도 이런 구호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동래중학교 출신으로 현재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용오의 글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으며 더구나 그런 말이 있었다면 “기관총을 쏘았”거나 “강제연행 된 뒤 맞아 죽었을 것”(130쪽)이라는 말을 C에게 했다는 점 등이다. 나아가 만약 실제로 ‘조선독립만세’ 등을 외쳤다면, 극형으로 다스려졌을 것이고 가족들에게까지 화가 미쳤을 것이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징역 8개월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았을 것(127쪽)이라는 점도 중요한 하나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리하여 A는 B가 주장하는 ‘조선독립만세, 천황제 타도, 침략전쟁’ 등의 용어는 전후 일본 좌익 운동의 테제일 뿐이며, 따라서 독립운동을 목격했다는 B의 글은 “창작”(131쪽)이며 “상상의 산물”(134쪽)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예상되었지만, A는 이 ‘노다이 사건’이 항일독립운동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치기어린 소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카가야 역시 이런 결론에 깊이 공감하며 안도의 느낌을 감추지 않는다. 이들의 결론대로라면 1940년 부산에서는 그저 작은 소란이 있었을 뿐이다. 마치 아무런 사건 없이 서사가 마무리되는 이 <1940년 부산>이라는 소설처럼 1940년 11월 23일 부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1940년 부산은 평화롭고 조용하며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로 남는다. A와 카가야에게, 그리고 부산중학 출신 그들의 선

후배에게 1940년 부산은,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과 낭만이 서려 있는 식민공간일 뿐이다. 소설의 중간 중간 등장하는 당시 부산의 거리 풍경은 대체로 카가야의 추억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소설의 처음과 끝에 제시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이런 사정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A라는 그 동급생의 얼굴이 머리 속에 떠오르기 전에, 새파란 만(灣)의 불의에 카가야 타미오의 눈앞에 펼쳐졌다.

부산항이다.

오랫동안 생각나지도 않았던 풍경이 무성영화처럼 잇달아 떠오르기 시작한다. 조용하게 입항해 오는 거대한 몸체의 연락선, 만에 떠 있는 절영도라 불리는 마키노시마(牧之島), 그 맞은편 해안에 걸려있는 당시 동양에서 하나뿐이라고 했던 개폐교(開閉橋)……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일찍이 일본에 병합되어 버렸던 조선이지만 추억의 풍경은 슬프게 아름답다.(97쪽)

카가야는 눈을 감는다.

구봉산이 떠오른다.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부산항이, 송도가---

식민지가 되어버린 조선에서의, 그것도 병약했던 소년시대의 풍경이지만 70세 가까이 되어도 끌리는 것이 있다.(138쪽)

카가야가 편지를 받자마자, A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전에 먼저 생각하는 부산의 풍경들은 비록 ‘슬프게도’라는 수사가 붙어 있긴 하지만, 아름다운 공간일 뿐이다. 그리고 소설의 맨 마지막에 다시 떠올리는 부산중학교 뒤의 구봉산 역시 그들이 뛰놀았던 추억의 공간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들이 소설의 맨 앞과 맨 뒤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1940년 11월 23일 부산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가능하다. 만약 A의 편지가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면, 부산은 지금까지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역사와 편지, 그리고 논픽션 노벨이라는 장르

이와 같은 논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이오 켄시는 이 소설에 몇 가지의 서사 전략을 숨겨 놓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카가야 타미오와 A가 이 사건을 여태껏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사람은 묘하게도 1940년 11월 23일 몸이 아파서 결석했다고 말하고 있다. 카가야 타미오는 당시 몸이 약했기 때문에 원래 자주 결석했고 그날 역시 미열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았으며, 무슨 소란이 있었다는 것은 퇴근한 아버지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것도 A의 편지가 없었다면 이조차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A 역시 감기로 결석했기 때문에 이 소란을 B의 글을 읽기 전까지는 까맣게 몰랐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200여 명의 학생이 체포되고 십여 명이 형사처벌 받았으며 수십 명이 한꺼번에 정학 또는 퇴학당한 이 사건을 이렇게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신문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²¹⁾고 해도 폐회식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서술에 놀란 ‘노다이’ 대좌조차 담을 넘어 도망칠 정도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의 사건은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꽤 오랫동안 회자되었을 것이고, 사건 당일 하루 결석했다고 해서 이를 듣지 못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사실은 다분히 의도된 설정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시 말해 그리 큰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21) 이 사건이 보도되지 않은 이유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당시 동래중학교 5학년이던 김영조는, “倭寇의 軍國主義者들이 이 事件의 時代的 重大性에 鑑하여 이의 全國的 波及을 憂慮”(김영조, 回想記, 釜山學生事件, 군봉별책특집, 『乃台事件回想錄』, 1964, 14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이 사건은 약 1개월 뒤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에 작게 보도되었을 뿐(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이다. 그 이유를 역사학계 등에서도 김영조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40년 부산>에서 B 역시 “이 사건은 신문에는 전혀 실리지 않았다”(109쪽)고 말하고 있다.

몰랐다는 것이며 그래야만 A와 카가야의 결론처럼 하나의 작은 소란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B의 글이 소설에서는 그 제목이 「독립운동을 목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A는 카가야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에서 부산중학교 동창들이 일본에서 묶어낸 회상집에 실린 B의 글을 작년 말에 보았다며 이를 복사해서 동봉한다. B의 이 글은 소설 속에 전제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원문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소설에서 서술되고 있는, B가 큰 출판사의 권위 있는 잡지에 투고하였다는 글은 다행히 확보할 수 있었다. B가 투고한 잡지는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세계』512호로 1988년 3월호이다. 독자투고란에 게재되어 있는데 2페이지 정도의 짧은 글이며 여기서 보면 B의 본명은 후루자와 아츠로(古澤敦郎)이다. 이 글은 소설에 전제되어 있는 B의 글과 몇 군데 조사가 바뀐 것과 단어 몇 개의 차이, 문장 구성이 조금 바뀐 것, 글의 말미에 몇 문장 덧붙여 있는 것 등을 제외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²²⁾ A는 후루자와의 편지를 그대로 옮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글 제목의 차이이다. 소설에서는 B의 글 제목을 「독립운동을 목격(獨立運動を目撃)」이라고 하고 있으나 후루자와의 원문 제목은 「50년 전 부산에서(五十年前, 釜山で)」²³⁾이다. 동창들의 회상록에 실린 글의 제목이 「독립운동을 목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설에서의 제목은 A의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A는 후루자와의 모든 글을 입수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훨씬 더 파급력이 큰 잡지의 제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의 제목을 「독립운동을 목격」이라 한 것은, 후루자와의 글이 과장되었으며 독립

22)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한국의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한국 통신(韓国からの通信)」이 귀중한 정보라는 내용뿐이어서,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23) 후루자와 아츠로(古澤敦郎), 「五十年前, 釜山で」, 『世界』512, 岩波書店, 1988. 3. 238~239쪽.

운동이 아니라는 그들의 의도를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 판단된다.

세 번째, 주요한 서사가 모두 편지로 이루어져 있고 인물 설정이 대단히 단순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편지가 아니라 전화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 A는 카가야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만 편지를 보내오고, 카가야 역시 A가 “전화로 용건을 말하지 않는 자세에 부응”(102쪽)하고 싶다고 느끼며 그에게 편지를 보낸다. 사적인 형식이라 해도 편지는 일종의 기록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밝힌 진실이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문자로 기록된 잘못된 문자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C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더욱이 이 소설의 마지막에 카가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 A가 『세계』의 편집책임자를 만나러 간다면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그들 주장의 훌륭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학교 시절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편지의 문체는 모두 아주 정중한 경어체로 되어 있다. 친구 사이에 편안하게 나누는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셈이다.

그리고 ‘카가야 타미오’라는 인물의 설정 역시 마찬가지다. 카가야는 사건의 핵심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듭되는 A의 편지에 답장조차 하지 않는다. 세 번의 답신은 그저 의례적인 것일 뿐, ‘노다이 사건’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 단순한 구성의 소설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편지로만 등장하는 A가 모두 담당하고 있고, 카가야는 다만 편지의 수신자일 뿐이다. 그는 오직 A의 편지를 읽으면서 옛날 일을 떠올리거나 A의 견해에 동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카가야는 중학시절 영어나 박물학에 발군의 성적을 냈던 우수한 학생이라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법대로 진학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징집 신체검사에서 떨어져 당시 판정관에게 “비국민”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며 이후 도서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카가야가 일본의 입장에만

치우친 인물이 아니며 풍부한 학식을 지닌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물이 믿는 사실은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A도 이웃나라의 해방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의 장르를 ‘논픽션 노벨’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 소설의 표지에는 “지금까지 저 전쟁에 끌려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집요하게 추적한 논픽션 노벨(いまだ、あの戦争を引きずる人びとの姿を執拗に追跡した ノンフィクション・ノベル)”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논픽션 노벨이란 일반적으로 말해 소설의 수법을 활용한 논픽션을 말한다. 논픽션이라는 점에 강조점이 두어지며, ‘사회적·역사적 사건과 문학적 허구의 만남을 통해 리얼리티에 접근’²⁴⁾하고자 하는 장르를 일컫는다. 논픽션 소설은 뉴 저널리즘과 비슷하게 쓰이는 개념인데, 기존의 소설이나 신문기사만으로는 더 이상 가변적 현실과 사회적 이슈, 도덕적 딜레마 등을 묘사할 수 없다고 느낀 일군의 작가들과 기자들이 창출해낸 새로운 장르로,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글쓰기 양식이다.²⁵⁾ 그러므로 논픽션 노벨은 기존의 글쓰기로 담아내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소설의 기법을 빌어 그 본질에 이르고자 하는 장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이 논픽션 노벨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이오 켄시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 실존 인물을 대거 등장시키고 있다. 그는 먼저 191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나열한다. 1909년 안중근이 이토오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에서부터 3.1운동, 박재혁의 부산

24) 정찬영, 『3·1운동과 5·4운동의 문화론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38,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321~322쪽.

25) Nicolaus Mills, *The New Journalism: a historical anthology*, McGraw-Hill, 1974 및 M. Johnson, *New Journalism*,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1. 여기서는 정찬영, 『한국 증언소설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00. 26~27쪽에서 재인용.

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1920), 최수열의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1920), 1921년 조선총독부 청사 폭탄투척,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1923), 관동대진재 후 도쿄 황거 근처의 니쥬바시(二重橋)에 폭탄을 던진 김두섭이 무기징역 선고 후 사형희망서를 제출한 사건(1923), 나석주의 동양척식회사 폭탄투척(1926), 천황의 살해를 기도한 이봉창의 사쿠라다몬(櫻田門) 사건(1932) 등을 그대로 나열한다.(114쪽)

그리고 실제 인물로는 당시 사건에 가담했던 동래중학교 학생들을 여럿 등장시킨다. 그 첫 번째 인물이 김기준(金琪俊)인데, 그는 실제로 정학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A와는 동경의 상과대학에 같이 진학한 클라스 메이트로 설정되어 있는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온다. 김기준의 편지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그의 등장은 논픽션 노벨이라는 이 소설의 장르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 외에도 당시 실제 ‘노다이 사건’에 가담했던 박순홍, 안장원, 김영조 등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인물은 신용오와 C이다. 소설에서도 신용오는 지바현의 후나바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옛 스승의 제자인 C를 고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신용오의 실제 진술과 그대로 일치한다.

현재 나는 지바현(千葉縣)의 후나바시(船橋)에 공장을, 동경에는 본사를 두고, 플라스틱 메이커로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6년 쯤 전, (1986년 경-인용자) 회사의 장래를 생각해서 경리에 밝은 인재를 모집했는데, 소설보다 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경(東京) 인재은행(人才銀行)의 소개장과 함께 이력서를 낸 남자가 지난날 동래중학에서 우리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신 지시자카(西坂, 니시자카의 오식-인용자) 선생의 둘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중략- 물론 그 자리에서 나는 그를 채용했고 그 후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는 지난날 일제 말기에 구제(舊制) 5년의 釜山中學을 졸업했으며, 학년으로는 나보다 3년 후배가 됩니다. -중략- 너무나도 닮은 몸짓, 좀 덤벙대는 버릇 등 그의 아버지 니시사카와 어찌면 그리도 닮았는지, 나는 그 옛날 삼각자로 머리를

맞던 일들을 떠올리며 지금도 쓴 웃음을 짓곤 합니다.

나는 그의 동창들이 펴낸 《幻の名門校(幻想의 名門校)》라는 회고록에 투고한 그의 <특고 경찰 정기 방문>을 읽고, 니시사카 선생의 친형이 일본의 명치 말기에 한국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가, 일본의 관헌(官憲)장사에게 붙잡혀 서울에서 참살 당했는데, 그 유골이 아직도 일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등, 니시사카 선생의 숨겨진 다른 면을 반세기나 지난 지금에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²⁶⁾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C 역시 니시자카(西坂)라는 실존인물이다. 그리고 C의 백부가 한국독립운동에 참가했다가 일본 관헌에게 참살 당했다는 사실 역시 소설 속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²⁷⁾ 이렇게 보면 이 소설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과 실제 인물들을 대거 등장시킴으로서 A가 밝힌 사실이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강조하는 셈이다.

그러나 논픽션 노벨이란 한두 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을 허구적 장치를 결합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본질적 의미를 밝혀내기 위한 장르이다. 이런 점에서 <1940년 부산>을 논픽션 노벨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1940년 부산>이라는 소설이 사건의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기보다, 지극히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26) 신용오, <전시 중의 나의 청춘, 낭만과 희망을 쫓던 아련한 추억의 그 시절로 나의 상념은 퍼져나간다>, 『군봉』40, 동래고등학교, 1992. 113~114쪽.

27) 소설에는 C와 그 가족의 이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당시 부산중학교 1학년이었던 후배에게서 A앞으로 편지가 온 모양으로, 《이 “C”군은 현재 신용오 씨의 회사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A는 덧붙이고 있다. C의 부친은 동래중학교 수학교사였다. 부산중학교 교련 교관인 중위의 부당한 트집에 부친도 일본인으로서, 분노를 표명했던 듯하다. 부당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카가야는 다시 확인한다. 그보다도 “C”의 편지에 그의 눈이 끌린 것은, C의 백부(아버지의 형)이 한국독립운동 실천행동대의 최선봉에서, 병합운동의 반대자로서 메이지 39년(병합 4년 전)헌병과 폭력배에게 참살 당했다는 한 사건이다. 백부는 당시 37세.”(129쪽) 이 사건 때문에 니시자카의 부친과 가족은 특고경찰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으며, 1944년 C가 소좌 육군특별간부후보생으로 항공대에 입대하기까지 특별 감시는 계속되었다고 한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역사적 사실이 지닌 본질적인 측면은 오히려 은폐되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그렇지만 이이오 켄시의 의도는 명백하다. 논픽션 소설이라는 장르라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인물들을 취재한 결과 ‘노다이 사건’에서 독립만세는 외쳐지지 않았고 따라서 항일운동이나 민족적 차원의 사건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고, 실존했던 학생들을 등장시켜 A의 이와 같은 집요한 추적이 결국은 진실을 밝혀내고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에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3) 기억의 삭제 혹은 과잉과 역사수정주의

그러나 이이오 켄시의 입장처럼 그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반된 관점이 편지 속에만 존재할 뿐 아무런 사건이 없는 이 소설처럼, 1940년 11월 23일, 부산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을까?

이 소설이 지향하고 있는 논리를 한국 측의 자료와 당시의 정황 등으로 추적해 보자. 소설에서 A가 가장 먼저 접촉한 사건의 당사자이며 A에게 유창한 일본어 편지를 보내 온 것으로 되어 있는 김기준은 소설 속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우승은 우리가 했으므로 우승기를 달라, 「일본제국군인도 부정하게 심판 하는가」등을 외치고, 일본국가가 불리워지거나,(일본국가가 불리워질 때) 「와 와」하고 야유하기도 하고, “아리랑”을 섞어서 노래하기도 하고 「천황폐하만세」를 제창할 때는, 「천황폐하 단팔죽(일본어 만세(万歳)를 이와 발음이 비슷한 쟈자이(善哉-팔고물 또는 단팔죽)로 바꾸어 버린 것-인용자)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노다이를 죽여라, 「일본인을 죽여라」(용서하십시오)라고 절규했습니다. 밤의 장막이 내리는 열은 어둠의 황혼 중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123쪽)

A가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면서 카가야는 여기서도 “『조선독립만세』, 『천황제타도』(혹은 『타도천황』), 『침략전쟁을 그만두라』” 등의 슈프레코히르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기준은 이에 바로 이어서 “조선독립만세”(124쪽)를 외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시가행진을 하면서 당시 금지곡이었던 “항성엠티”와 “아리랑” 등의 노래를 불렀고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일본인을 죽여라”, “일본인은 돌아가라”고 부르짖었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을 A나 카가야는 그리 눈여겨보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독립만세』라든가 『일본인을 죽여라』는 등의 부르짖음도 누군가가 선두에 서서 선도한 것이 아니라 제각기 각자가 마음대로 외친 것”이라는 이어진 진술에 무게를 두고 “항일운동이라고 할 수 없”(128쪽)다는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 묘하게도 김기준은 기억력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A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김기준은, 1943년 일본 유학 시절 장티푸스에 걸려 미타가(三鷹)의 격리 병원에 2주간 수용되었고 미에(三重)현의 시골에서 요양생활을 했음을 밝히고 있고(121쪽) 『40년 부산학생 항쟁에 나도 한 마디-소위 노다이 事件에』라는 글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나는 일본 유학 시절에 장티푸스에 걸려, 동경 근교의 격리 병원에 입원 수용되어 있었는데, 40도 이상의 고열이 연일 계속된 관계로 뇌 세포가 손상된 탓인지, 완치되어 퇴원한 후 동래고 시절을 회상해 보니 도무지 기억들이 잘 나질 않고 일종의 건망증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중략-그래서 노다이 사건의 기술에 있어서도, 대충 줄거리만 생각나는 대로 적었을 뿐 세세한 부분은 제대로 써 넣지 못했다.²⁸⁾

물론 김기준은 현재는 기억이 90% 이상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28) 김기준, 『『40년 부산학생 항쟁에 나도 한 마디-소위 노다이 事件에』, 부산학생 항일의거기념논집 편찬위원회, 『부산학생항일의거의 재조명』, 계림, 1992, 176~177쪽. 김기준은 또 다른 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재의 내 생활 주변을 살펴본다』, 『동고 19기 망월회상록』, 문성출판사, 1990, 241~242쪽.

이렇게 본다면 A와 카가야는 기억력을 자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글을 자신들이 읽고 싶은 방향으로만 읽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전후(戰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행된 회상록에서 ‘박순홍(朴淳鴻)’이라는 동급생의 글에도 ‘조선독립만세’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행되었다는 회상록은 『乃台事件回想錄』으로 동래고등학교의 교지인 『군봉(群蜂)』의 별책특집으로 1964년 발행되었고 ‘노다이 사건’을 해방 후 처음으로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정작 박순홍의 글은 여기에 실려 있지 않다. 기본적인 오류라 할 수 있겠는데, 박순홍의 글은 이 책이 아니라 『동고 19기 망월회상록』(문성출판사, 1990)에 『乃台(노다이)事件 有感』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 글에서 박순홍은, 폐회식 때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및 천황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노래인 우미유가바(海行かば)를 합창할 때는 입을 다물고 입안 소리로 구덕 언덕이 떠나가듯 “우-우-”하며 야유했으며, “노다이를 죽여라”, “아리랑”, “황성옛터”, “노들강변”, “일본놈 죽여라” 등을 외쳤다고 회고하고 있다.²⁹⁾ 그러나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독립만세’를 외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 박순홍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A는 B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모자로 징역 8개월의 형벌, 그리고 퇴학된 당시 5학년 김영조(金榮照), 안장원(安長遠) 두 사람의 회고록에서도 『제국주의전쟁반대』, 『천황제타도』, 『조선독립만세』 등의 외쳐지지 않았다고 B를 질책한다. 김영조, 안장원의 글은 『乃台事件回想錄』에 실려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 ‘노다이 사건’에 대한 것으로 “1.序文(乃台事件回想記를 내면서)-校長代理 文仁甲, 2.乃台事件의 眞相(回想錄)-十八回 卒業生 同窓一同, 3.學生봉起와 乃台事件-安長遠, 4.回想記(釜山學生事件)-金榮照, 5.乃台事件을 回顧해 본다.-金炳현, 6.乃台事件을 회

29) 박순홍, 『乃台(노다이)事件 有感』, 『동고 19기 망월회상록』, 문성출판사, 1990, 199~200쪽.

想하며-鄭東煥, 7.乃台事件을 되새겨본다-(一般社會人)金文秀, 8.當時 犧牲者 紹介-文仁甲, 9.座談會(乃台事件을 回想하면서)-在學生, 卒業生 對談, 10.乃台事件 眞相은 이렇다, 11.國際新報 記事”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0과 11은 같은 글이다. 당시 『국제신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 <내태 사건은 이렇다>임-인용자). 그런데 이 책에 실린 글의 성격은 “일시적인 학생폭동이 아니고 民族義憤에서 일어난 正堂堂한 學生義擧”이며, “秩序整然하게 市街行進을 해서 獨立萬歲”를 부른, “韓國獨立運動史 最後의 페이지”³⁰⁾를 장식한 사건이라는 당시 문인잡 동래고등학교 교장 대리의 서문에 미리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김영조, 안장원 두 사람의 글에도 ‘조선독립만세’ 등이 외쳐지지 않았다고 하는 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김영조는 회고에서 구호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當時의 倭놈들의 가슴을 썩늘하게 하여 韓民族의 민족의식이 살아있음을 선양하고 自主독립의 血路를 다시 이은” 민족적 거사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³¹⁾ 또 안장원은 폐회식에서 “우승은 우리가 하였으니 우승기를 내놓아라”를 외쳤으며, 일본 국가를 봉창할 때는 “아리랑”을 섞어 불렀고, “천황폐하 만세”는 “천황폐하 젠자이”로 야유했으며 “내태 죽여라” 등을 외쳤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시가행진을 하면서 “조선독립만세” 소리 높여 외쳤고 “황성옛터”, “아리랑”, “도라지타령” 등의 노래를 불렀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카가야는 B의 “투고문대로라면 당시 고문으로 죽은 학생이 있지 않을까”(116쪽)하면서 전쟁 중의 부산에서, 그것도 “황기(皇紀) 2,600년이라는 빛나는 해”에 “타도천황을 외치고 생명이 무사하

30) 문인잡, 『乃台事件回想記를 내면서』, 군봉별책특집, 『乃台事件回想錄』, 1964. 1 쪽.

31) 김영조, 『회고기, 부산학생사건』, 『乃台事件回想錄』, 13쪽. 이 글의 목적은 노다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설명하는 데 두어져 있지 않다. 25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당시의 심정을 옮긴 글이기 때문에 이를 A처럼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120쪽)다고 하지만, 출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문의 후유증으로 ‘김선갑, 김명수’ 두 사람이 사망한다.³²⁾ 그리고 A가 보내준 김기준의 편지를 읽으면서 카가야는 김기준이 항일운동 또는 항일의거라고 하는 ‘심정’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징역 8개월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었다는 점을 들어 ‘운동’이 아니라 “노다이 대좌 저택 습격이라는 소란”(127쪽)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16~7세의 학생들에게 징역 8개월은 가벼운 형벌이 아니다. 더욱이 이들은 모두 퇴학 처벌까지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경찰이 결코 이 사건을 가볍이 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³³⁾ 실제로 사

32) 18회 졸업생 동창일동, 『回想錄, 乃台事件의 真相』, 『乃台事件回想錄』, 군봉 별책특집호, 동래고등학교, 1964. 12쪽. 김영조의 위 글에는 희생된 두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33) 이병주도 《관부연락선》(기린원, 1980)에서 이 사건이 당시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유태립’이 노다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동경 유학생 사이에도 큰 관심거리”(하권, 16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부산에 와서 중학 시절의 친구 ‘홍(洪)’을 만나 노다이 사건의 경과를 물어본다. ‘홍’은 자기 동생이 주모자로 잡혀 현재 감옥에 있다(실제로 당시 구속 송청된 학생들 명단 중에 ‘홍병희(洪秉熹)’라는 당시 부산제이상 5학년 학생이 있다. 홍병희는 징역 10개월의 형을 받았다고 한다.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18쪽)고 한다. 그런데 ‘홍’은 검사의 구형이 엄청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의 말을 들으면 검사의 구형은 험한 편이래. 배후관계나 있고, 본래 소질이 나쁜 놈들 같으면 십 년 이상의 징역감이라는 거야.』-중략-『유군, 어쭙잖은 친구의 충고라고 생각하지는 말게. 자네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 이런 사건엔 관심을 갖지 말게. 자네는 우리 모두가 축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불온한 사상이나 단체나 사건에 말려들어선 안 되네. 동경 유학생 가운데는 아직도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더라도 시국을 똑바로 인식해야 하지 않나,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리고 뺨어가는 일본의 세력을 바라, 어디 조선의 독립이란 꿈이나 꾸겠나. 솔직히 바로 하는 말이지 우리 엽전이 독립을 했다고 치고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겠나. 내 끝의 동생은 육군 사관학교로 보낼 생각인데, 글썽 감옥에 있는 그놈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걱정이란 말이다. 유군 잘 생각해서 행동하게.』”(하권, 19~20쪽). 이렇게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사건이 아니다. 단순한 폭력사건이었다

건이 일어난 약 한 달 뒤, 『매일신보』에는 『時局을 물은 行動-國防競技大會不祥事件에 對하여』라는 제목으로 경남경찰부장의 담화가 발표된다.

(-전략-)지난 十一月 二十三日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된 기원 二천六백년 봉축 제 二회 국방경기대회(國防競技大會)에서 심판에 불공평이 있다고 하여 一부중등학생이 동요하여 드디어 심판장인 부산중학 내 대대좌(乃臺大佐-乃臺의 잘못, 인용자) 주택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는 경찰의 취조도 겨우 쫓이나 二十四日 사건을 검사국으로 넘기었으므로 이 기회에 나의 소신을 피력하여 학생 생도의 맹성을 촉함과 동시에 부형에 대하여 비상시국 아래에 잇서서의 자제 훈육상 심심한 유의를 절망하는 바이다.-중략-경찰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자 곧 이를 관계 학생 전부에 대하여 엄중한 취조에 착수하여 요즘 겨우 취조도 一단락을 하고 사건의 상세한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금일 일부 소수자만을 구속 기타는 불구속으로 사건을 소환 지방법원 검사장에게 넘기었다.

그동안 각 학교 당국과 부형 측에서도 이 사건의 전후 조치에 관하여 잘 관계 당국과 협조 선처한 것은 본직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나 시국은 점점 중대하여 내선 一반 민중은 잘 내선-체의 당국 시정 방침을 뜻바더 총후의 지성을 피력하고 잇는 이 때 장래 국민의 중핵(中核)이 될 청소년 학도의 훈육에는 가장 계신(戒愼)을 요할 바 잇으므로 이제 각별한 유의를 원함과 동시에 금후도 이 사건에 관하여 공연히 단마억측(揣摩臆測)을 하거나 유언비어를 하고 쏘는 무책임한 언동을 함과 가름은 관계자이든 안이든 불고하고 一반에 엄게하여 쫓까지 당국의 조치에 신뢰 협력하고 一층 학교 기타 관계 방면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 다가티 금후 다시는 이와 가튼 불상사건을 이르켜 전도유위한 청소년 학도의 장래를 암담케 함과 가튼 일이 절대로 업도록 심심한 노력을 원하는 바이다.³⁴⁾

면 동경유학생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을 것이고 ‘홍’이 ‘유태립’에게 불온한 사상이나 단체에는 아예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충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34) 『매일신보』, 1940년 12월 28일

여기서 경상남도 경찰부장은 이 사건을, 신성한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학생들의 노다이 집 폭행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능하면 처벌의 범위를 좁혀 선처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처벌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보면, 이를 두고 청소년 학생들의 앞날을 염려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추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드시 경찰에 구속된 학생만이 아니라, 동래중학교와 부산제이상업학교에서도 퇴학 정학 등의 처벌이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타 학교에의 전학이나 상급학교에 진학의 길이 막혀 곤란을 겪은 학생도 적지 않은 까닭이다.³⁵⁾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단순한 소란이라면 경남 경찰부장이 이렇게 신문에 담화를 발표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연행하여 한 달 이상 심문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또 근거 없는 억측이나 유언비어를 경계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경찰은 이 사건이 파급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 사건이 확대될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³⁶⁾

35)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른바 ‘봉안전 오물 사건’이다. 교문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봉안전(奉安殿)에는 천황 부부의 사진이 안치되어 있고, 학생들은 이 앞에서 직립 부동의 자세로 머리를 깊이 조아려야 했다. 그런데 노다이 사건으로 퇴학당한 ‘임규호(동래중학교 19회)’가 서울로 전학하기 위해 동기생인 ‘배중훈(裴鍾勳)’과 함께 일본인 담임인 무라세(村瀬舜吉)에게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다. 이에 배중훈은 그날 밤 1년 후배 ‘차재규(車在奎)’와 함께 학교 담을 넘어 들어가 ‘차재규’에게 망을 보게 하고는 봉안전에 대변을 보고 나온다. 그 결과 ‘배중훈’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고 한다.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24~225쪽.

36) 이뿐만이 아니다. 다나카 히데미츠(田中英光)의 <취한 배醉いどれ船>에서도 노다이 사건이 잠시 언급된다. 이 소설에서는 청인초연맹(실제로는 녹기연맹) 책임자인 도다 지로(都田二郎)의 입을 빌어, 당시 시국의 엄중성을 이렇게 말한다. “군대에 반전유인물을 유입하는 횡수도, 유언비어로 검거되는 사람 수도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다. 열차나 공중변소 안에 조선어로 된 낙서도 붙은하고 불경스러우며 격렬한 문구가 많아졌다. 작년 가을에도 부산에서 중학교에 연합 추계연습이 있을 때, 일본계 군사 교관의 사택을 조선계 학생들이 무장습격 한 사건이 있었다.” 다나카 히데미츠, 유은경 역, 《취한 배》, 소화, 1999, 188~189쪽. 여기서 말하는 작년 가을의 사건이 곧 노다이 사건인데, 이로 미루어 보

이렇게 보면 A와 카가야는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의 내용을 취사선택하고 있다.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확대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삭제 또는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기억의 축소 삭제 또는 과잉이라 할 수 있을 이러한 사태는, 일종의 기억투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민족적 또는 역사적 욕망이 더해질 때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창작된 1993년이라는 시점은 이런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오카 마리(岡眞理)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이른바 역사 수정주의라는 흐름이 나타난다. 일본에서 역사 수정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중군위안부’에 관한 교과서 기술의 삭제를 요구하며, 일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국의 정사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에서 그들은 난징대학살과 ‘홀로코스트’는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등의 논리를 강화시켜 나간다. 이를 두고 오카 마리는 ‘기억의 암살’이라 명명하고 있다.³⁷⁾ A와 카가야의 태도 나아가 이이오 켄시의 태도가 여기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 이 사건에 참여했던 한국 측 당사자들의 기억이라고 다르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기억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보면, 일본의 패전에 따른 식민지의 종식과 함께 ‘민족적인 형식이나 내용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 사건의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동래고등학교와 부산상업고등학교의 논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사상계』 1964년 11월호에 실린, 부산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사건을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하는 글³⁸⁾

아도 이 사건을 당시 제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

37) 오카 마리, 김병구 옮김, 『기억, 서사』, 소명출판, 2004, 23~24쪽 참조

38) 조덕송, 『日末抗日學生運動-釜山第二商業學校事件, 光州高普第二學生事件, 大邱師範學生事件』, 『사상계』, 1964년 11월, 82~86쪽 참조. 당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라는 조덕송은 이 사건을 아예 ‘부산제이상업학교사건’이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질 무렵 최종 경기에 이르러 第二商이 종합전적으로 이날의 우승을 차지하였는데 審判長 乃台가 어둠을 기화로 第二商이 反則을 범하였다’는 억지

에 동래중학교 출신자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³⁹⁾이나 동래고등학교에서 『乃台事件回想錄』이 나온 지 거의 정확하게 3년 뒤 출간된 『부산학생사건정사』⁴⁰⁾가 부산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이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논란은 이 ‘노다이 사건’이 민족적인 의거이며, 가장 엄혹했던 시대에 극적으로 터져 나온, 그래서 길이 기념하고 칭송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라는 입장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욕망이 이와 같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노다이 사건이 이와 같은 민족적인 항일운동이고 학생의거⁴¹⁾라면 당시 부산은 철저히 반식민의 공간이며 저항의 장소라는 의미를 획득한다. 물론 이러한 성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만을 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도 그리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사건이란 단순한 것이 아니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한 가지 측면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다른 측면들을 배제해 버릴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노다이 사건 역시 한 가지 특징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바탕으로 1940년 당시 부산

를 내세워 그만 日人 학교인 부산중학에다 우승을 주는 誤審을 의식적으로 감행하였다.’라고 서술하여 이 사건이 부산제이상업학교에 대한 오심으로 일어났다고 서술하고 있다.

39) 조덕송의 위와 같은 주장에 동래고등학교 출신자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그 첫 번째가 김문수, 「내태사건을 되새겨본다(『乃台事件回想錄』, 앞의 책, 21~23쪽)이다. 여기서 김문수는 “俗說에 「출은 꿈이 추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는 格으로 釜商校가 乃台事件을 주도했다는 思想界 十一月號(一九六四年)의 釜山學生事件 內容을 읽고 나는 愕然 失色했다.”며 그 부당성을 강하게 항의한다. 또 『동래고등학교 100년사』에서도 ‘부산 공설 운동장 학생 의거의 주동 학교 논쟁’이라는 절을 설정하여, “‘부산제2상’에서는 우리의 의거에 동조하여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19~222쪽.

40) 부산학생사건정사편찬위원회, 『부산학생사건정사』, 아성출판사, 1967.

41) 이는 <1940년 부산>에서 보이는 이이오 켄시 또는 카가야 타미오, A의 관점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지향하는 것이다. 기억투쟁이 국가 간에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의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는 것도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⁴²⁾

3. 1940년 ‘노다이 사건’의 양가성

1) 제국의 논리와 저항의 논리, 뒤섞이는 구호들

이 사건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증강국방경기대회’의 성격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대회는 1939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고 1940년 제2회대회가 개최 되었다. 이 경기의 종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증강국방경기대회 경기종목 및 내용⁴³⁾

경기종목	경기내용
100 미터	개인이 총을 가지고 달리기
400 미터 릴레이	4명이 한 조가 되어 총을 바톤으로 하여 달리기
80 미터 장애물	총을 들고 한 사람씩 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넓이뛰기	5명이 한 조가 되어 무장하여 넓이뛰기를 하는 것. 총점수로써 우열을 가림. 이때 총구멍이 땅에 닿으면 무효임(총구멍에 흙이나 모래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

42) 강대민, 『부산지역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2003, 『부산독립운동사』, 부산지방보훈청, 1996, 『항일 학생운동의 재조명』, 경성대학교부설 한국학연구소, 2000에 실려 있는 ‘김호일’, ‘강창석’ 등의 글, 김형목, 『1940년 부산항일학생운동의 민족운동사상 의의』, 『문화전통론집』14,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등 대부분의 역사는 이런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한편 김인호는 이 사건에 대한 기술이 ‘항일성’만 특화하였으며, 민족의 이름에 기댄 다양한 ‘우려내기’, 학교사의 입장에서 부풀려진 ‘과잉해석’의 위험 등을 들어 이 사건을 ‘11·23 사건’으로 명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인호, 『부산 11·23 사건, 민족과 항일의 울타리를 넘어서』, 『항도부산』26,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0. 군데군데 논리의 비약이 보이긴 하지만, 이 글은 ‘노다이 사건’을 바라보는 민족적 열망을 객관화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3)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12쪽

높이뛰기	5명이 한 조로 무장한 상태에서 총만 가지지 않고 높이뛰기를 하되 대검이 빠지면 무효
턱걸이	5명이 한 조가 되어 칠봉에 턱걸이 하는 것. 총은 가지지 않음.
수류탄 던지기	5명이 한 조가 되어 수류탄을 던지는 것.
토양(土壤) 운반	모래를 넣은 가마니를 짊어지고 달리는 것. 5명이 한 조가 되고 가마니 중량은 8관(30kg)
비상소급	바지만 입고 누워 있다가 총소리가 나면 빨리 일어나 달리면서 옷을 입고 각반을 차고 무장하여 달리기
담가(擔架) 운반	5명이 한 조가 1인은 환자가 되어 담가에 실리고 넷이 달리기
중량물 들기	6관(22.5kg)짜리 역기를 많이 들어 올리는 횟수 경쟁
씨름	5명이 한 조로 구성
견인경주	큰 나무 널판 위에 모래 가마나 세 개를 싣고 5명이 한 조가 되어 긴 줄을 잡고 끌어당기기
줄당기기	20명이 한 조가 되어 긴 줄 당기기
무장행군	20명이 무장하여 한 손에 긴 줄 하나를 잡고 2,000 미터 마라톤 하기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는 “皇國青年의 자질연성에 노력하고 皇軍翼贊에 참가한다”⁴⁴⁾는 취지 아래 개최된 대회답게 모든 종목이 군사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대부분의 종목이 4~5명, 많게는 20명이 한 조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집단 간의 경쟁심과 애교심이 화학적으로 결합”⁴⁵⁾하기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집단과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중일전쟁 발발 이후 가파르게 전개되는 전시국면의 긴장감을 높이면서 이른 바 총후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의 대회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회는 지극히 제국적이며 식민의 논리를 강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위해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것은 제국과 식민의 논리에 은연중 동조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대회 참여 여부가 개인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적게는 부산부내

44) 『매일신보』, 1941. 5. 12, 13. 여기서는 김인호, 「1940년 부산 11·23사건의 사회경제적 기초」, 『한국민족운동사연구』7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188쪽에서 재인용.

45) 김인호, 위의 글, 189~189쪽.

4개 학교, 많게는 18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가 여부만으로 이들 행위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문제는 전시 하에서 제국의 군사 훈련 종목들을 겨루다 보면, 학교들의 경쟁심만 부각되어 제국과 식민의 전쟁 논리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러는 사이 제국과 식민의 논리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이치처럼 내면화될 위험이 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1939년 개최된 제1회 대회에서 동래중학교가 우승하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물론 여러 증언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제2회 대회에서는 조선계 학교의 우승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제국적 논리가 노다이 사건의 먼 원인이기는 해도, 만일 다시 동래중학교나 부산제이상업학교가 우승했다라면 이런 일은 어찌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당시 부산에서는 전시에 편승하여 제조업이 증가하고 있었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이른바 국방헌납이 기업 및 일반 부산부민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었다는 점⁴⁶⁾도 이 대회와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증강국방경비대회의 성격이 제국적이고, 당시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국방헌납 등이 식민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런 점들만으로 부산이라는 장소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40년대 들어 대중들에 대한 검속이 강화되고 있기는 했지만⁴⁷⁾ 노다이 사

46) 김인호, 앞의 글, 193~202쪽 참조.

47) <학생사상범죄사건>이라는 다음의 표를 보자.

연도	1931	1932	1933	1934	1935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상반기
건수	6	22	24	8	5	6	16	48	57	46	16
인원	136	414	302	29	152	26	121	203	409	198	42

홍석률, 『일제하 청년학생운동』, 『한국사』15, 한길사, 1994. 여기서는 강대민, 『부산지역 항일 학생운동의 성격』, 『항일 학생운동의 재조명』,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0, 82~83쪽에서 재인용. 이에 근거하여 강대민은, 국내 대중운동이 1930년대 후반보다 더욱 고양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학생운동도 더욱 힘있게

건으로 처벌받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1940년 동래고등학교에는 비밀 결사단체인 독서회가 조직된다. 이 단체는 이듬해 ‘조선독립당(朝鮮獨立黨)’으로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바친다”는 맹세를 당 강령 제1조로 명시하여 의열단을 연상시키는 활동을 개시하기도 한다.⁴⁸⁾ 이런 점은 식민과 제국의 논리가 아무리 강화되어도 특정한 계기만 주어지면 여러 가지 불만과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서 노다이 사건 당시 터져 나왔던 구호와 노래들⁴⁹⁾을 분석해 보자. 당시에 외쳤다고 하는 구호와 노래들을 거칠지만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조선독립만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기로 한다)

전개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 과연 대중운동이 고양된 결과였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전시체제기에 한층 더 강화된 사상 검속 등의 영향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 48) 이에 대해서는 강대민, 위의 글 84쪽의 표 및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32~234쪽 참조. 이들은 1944년 ‘고이소(小磯) 총독 암살, 일본군 탄약고 폭발, 군용열차 통과 시 구포고 폭발’ 등을 모의하기도 하지만 모두 부산 북부경찰서에 검거된다. 이 때 검거된 ‘김진훈’은 모진 고문으로 1945년 4월 옥사하였고, 나머지는 조사를 받던 도중 감옥에서 해방을 맞는다.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23쪽.
- 49) 이 구호들은, ①문인갑, <노다이(乃台) 事件의 回顧>, 『부산교육』194, 부산시 교육위원회, 1978. 8~12쪽. ②문인갑, <1940년의 부산 학생 항일 의거>, 『동고 19기 망월회상록』 문성출판사 1990, 210~217쪽. ③박순홍, <노다이(乃台) 事件有感>, 『동고 19기 망월회상록』 문성출판사 1990, 197~209쪽. ④김석희, <일제 말기 부산의 항일운동-동래고등학교사를 중심으로>, 『군봉』40, 동래고등학교, 1992. ⑤신용오, <전시 중의 나의 청춘, 낭만과 희망을 쫓던 아련한 추억의 그 시절로 나의 상념은 퍼져나간다>, 『군봉』40, 동래고등학교, 1992. ⑥부산학생사건정사편찬위원회, 『부산학생사건정사』, 아성출판사, 1967. ⑦ 동아일보 1940년 12월 28일 기사 ⑧『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동래고등학교총동창회, 2002. ⑨『乃台事件回想錄』, 『군봉 별책특집호』, 동래고등학교, 1964. 에 실린, 18회 졸업생 동창일동, 『乃台事件의 眞相(回想錄)』, 안장원, 『當時 犠牲者의 手記, 學生蜂起와 乃台事件』, 김영조, 『回顧記, 釜山學生事件』, 김병현, 『當時 在學生의 回想記, 乃台事件을 回顧해 본다』, 정동환, 『乃台事件을 回想하며』, ⑩ 조덕송, 『日末抗日學生運動-釜山第二商業學校事件, 光州高普第二學生事件, 大邱師範學生事件』, 『사상계』, 1964년 11월호 등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성격	구호
불공평한 심판에 대한 항의	불공평한 심판을 취소하라, 부정심판에 응할 수 없다, 엉터리 심판 취소하고 민족차별 없애라, 우리가 우승하였으니 우승기를 내놓아라, 무엇이 정정당당했느냐 등.
민족적 차별을 하는데 대한 불만	엉터리 심판 취소하고 민족차별 없애라, 민족차별을 철폐하라, 무엇이 내선일체냐, 무엇이 제국의 군인이냐, 무엇이 동아의 맹주냐, 차별교육을 철폐하자 등
노다이와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	노다이를 죽여라, 노다이 잡아라, 노다이 내려와, 일본 놈 때려라, 일본 놈(왜놈) 죽여라, 일본인 물러가라, 일본 놈은 돌아가라 등
천황 또는 기미가요를 모독	일본천황 첩자이, 우-우(음-음, 음-음), 아리랑
민족적 형식의 노래들	아리랑, 황성옛터, 노들강변, 장산도, 도라지 타령, 쾌지나 칭칭

불공평한 심판에 항의하는 구호들은 경기 자체가 불공평하게 진행되었고 이것이 학생들의 불만을 초래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 구호는 노다이가 부산중학교의 우승을 선언한 폐회식에서 곧바로 터져 나온다. 이 구호들은 당연하게도 부당하게 우승을 빼앗겼다는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때문에 전력증강국방경기대회의 논리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불공평한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이 점만 바로잡아진다면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구호는 제국과 식민의 논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 불만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는다. 동래중학교를 비롯한 조선계 학교 학생들은 지속적인 차별로 인해 일본(인)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을 지니고 있다. 제1회 대회에서 조선계 학교인 동래중학교가 우승하자, 제2회 대회에서는 어떻게든 일본계 학교를 우승시키려고 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11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친 야외 훈련에서 조선 학생들의 체력을 고갈시키기 위해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등⁵⁰⁾은 조선계 학교 학생들이 평소에 지니고 있었던 불만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족적 차별을 철폐하고 온전한 내선 일체를 추구하라는 구호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구호 역시 그다지 위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1940년 당시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던 내선일체, 나아가 오족협화 등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평등’을 내세우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일종의 기대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⁵¹⁾ 그렇기 때문에 민족 차별 철폐나 내선일체 등의 구호는 표면적으로는 제국의 논리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구호들은 제국이 내세우는 논리를 명실상부하게 시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그다지 위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문제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적개심이다. 부정심판을 기획하고 자행한 노다이 대좌를 향한 적개심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형태로 진행된다. 폐회식에서 동래중학교와 부산제이상업학교 학생들이 ‘노다이를 잡아라’고 외치며 그를 향해 달려가고 ‘노다이를 죽여라’고 외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적개심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인데 이는 곧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옮겨 간다. ‘일본 놈(왜놈) 죽여라’, ‘일본인은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일본인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평소의 불만이 간단치

50)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자. “매년 있는 군사훈련의 査閱을 겸한 도내 전 중학교로 편성된 紅白兩軍의 二日間에 걸친 합동야외훈련이 실시되었을 때, 동래중학생들에게 가장 심한 고역을 맡게하여 山路를 迂回行軍시켜 일인교보다 체력이 더 소모하기를 모함하였다.” 『回想錄, 乃台事件의 真相』, 『乃台事件回想錄』, 4쪽. “國防競技大會 卽前에 實施한 이 野外軍事訓練에서 釜山第二商 과 東萊中學의 體력을 消耗시키고 疲勞를 주어 翌日의 競技大會에 不利하도록 誘導하였다. 乃台大佐는 兩校만을 險惡한 山地에 配置시키고 行進할 때는 山路를 迂回시켜 休息을 주지 않고 또 必要없이 驅步를 시켰다. 野營 時는 日人校 와 差別하여 釜山二商과 東萊中學에는 天幕과 燃料의 配給을 적게 했다.” 『부산학생사건정사』, 8쪽. 이런 내용은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51) 앞서 언급했던 국방헌납 등의 행위는 이런 기대의 일종이라 볼 수 있고, 나아가 이광수 등의 극단적인 친일도 이런 논리에 기대는 것이었다. 전쟁과 내선일체 등이 주는 평등에 대한 기대는 오쿠마 에이지(小熊英二), 『<日本人>의境界-沖繩・アイヌ・台灣・朝鮮 植民地支配から復歸運動まで』, 新曜社, 1998, 427~434쪽 참조.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제국과 식민의 논리에 대한 잠재적 불만이 특정한 계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제국과 식민의 논리를 관찰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대회에서, 심판의 부정이라는 계기로 터져 나온 불만들이 이제는 민족적 저항의 장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던 열기왕성한 학생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증폭되어 이와 같은 구호를 외치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사건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간다.

천황을 모욕하고 기미가요를 훼손해 버리는 것, 그리고 전통적인 조선의 민요나 당시 금지곡을 부르며 가두 행진을 하는 것은 사건이 견잡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당시 동래고등학교 교사였던 '김영근'은 학생들의 피해를 염려하여 운동장에서부터 학생들을 만류하고 부평동에서는 일부 학생들을 귀가시키기도 하지만, 그의 노력은 “선생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노다이(乃台) 집으로 가자”⁵²⁾는 한 마디에 간단하게 묻혀 버린다. ‘천황폐하 만세’가 ‘천황폐하 단팔죽’이 되고 기미가요에 욕설이 섞이거나 ‘아리랑’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 천황과 일본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되고 제국의 공식적인 모든 수사(修辭)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부산공설운동장과 당시 학생들이 행진했던 부산부내의 거리는 이제 한바탕 축제의 장⁵³⁾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다. 기미가요를 욕설로 바꾸어 불렀다고 회상하면서 “우리의 감정 표시엔 五線도 音律도 모두 다 無用之物”이었으며, “우리의 감정이 통할 수 있는 거룩한 합창을 치루었으니 이 얼마나 통쾌한 기분”⁵⁴⁾이라고 말하는 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에게

52)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15쪽.

53) 바흐친의 ‘카니발’ 개념이 이 경우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육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1. 231쪽 참조.

54) 제18회동창생일동, 『乃台事件의 眞相(回想錄)』, 『군봉 별책특집호』, 동래고등학교

이와 같은 합성과 노래는 억눌린 감정의 극적인 분출이었으며 통제할 수 없는 한바탕 신명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민요와 금지곡을 부르며 식민성으로 가득 찬 부용동 광복동, 영주동 거리를 휩쓸고 다니며 급기야는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산 중턱에 권위적으로 앉아 있는 노다이의 저택까지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2) '조선독립만세'라는 구호의 상징성

여기서 또 한 가지 되짚어 보아야 할 문제는 과연 '조선독립만세'라는 구호가 외쳐졌는가 하는 점이다. 이이오 켄시가 A와 카가야 타미오를 통해 문제 삼았던 구호는 '조선독립만세', '천황제 타도(타도천황)', '침략전쟁을 그만 두라' 등의 구호이다. 그들은 이들 구호가 외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1940년 11월 23일 사실상 아무 일이 없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 구호들 중, '침략전쟁을 그만 두라'는 구호는 B가 사실상 철회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논란하기 힘들다. 그런데 '천황제 타도(타도천황)'는 '천황폐하 단팔죽' 등의 구호와 연결시켜 볼 때,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이오 켄시가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조선독립만세'는 이날 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소란'인지 의미 있는 '사건'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자료들은 명시적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도 있다.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사람(자료)들은, 문인갑(『노다이 사건의 회고』, 1940년 부산 학생 항일 의거), 『부산학생사건정사』, 『내태사건회상록』(18회졸업생동창일동, 안장원), 조덕송(『日未抗日學生運動-釜山第二商業學校事件, 光州高普第二學生事件, 大邱師範學生事件』) 등이고, 박순홍(『노다이(乃台)사건 유감』, 신용오(『전시 중의 나의 청춘, 낭만과 희망을 쫓던 아

련한 추억의 그 시절로 나의 상념은 퍼져나간다.『동래고등학교 100년사』, 『乃台事件回想錄』(김영조, 「회고기, 부산학생사건」, 김병현, 「당시 재학생의 회상기」, 정동환, 「내태사건을 회상하며」, 김문수, 「내태사건을 되새겨본다」) 등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이 없다. 그런데, 신용오의 글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추억하는 글이기 때문에, 노다이 사건에 대해 아주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라 구호 등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김영조의 글 역시 이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적고, 사건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서의 감회와 당시 고문으로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게 애도를 표하는 내용이 위주가 되어 있다. 김병현 역시 불공평한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 뿐이며, 김문수의 글은 부산제이상업학교와의 주도권 논란이기 때문에 구호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이오 켄시가 A의 입을 빌어 말하는 것처럼 ‘조선독립만세’라는 구호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박순홍과 정동환의 글은 구호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조선독립만세’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을 뿐, A가 말하는 것처럼 이 구호가 없었다고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역시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의 방향과 태도가 식민지에 저항한 민족 항쟁이며 학생의거였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여기서 당시 유일하게 이 사건의 경과를 보도한 『동아일보』의 기사는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釜山公設運動場에서 개최되었던 소위 第2回 慶南學徒戰力增強 國防競技大會의 開會式에 參加하였던 釜山第二商業學校와 東萊中學生들은 國防競技大會가 日本人 審判陣의 不當한 處事로 日本人 學校가 優勝을 차지한데 分개하여 抗議를 제기하다. 閉會式 마지막 순서로 日本旗가 下降하자, 韓國人 學生들은 日本國歌 대신에 「아리랑」을 제창하였으며

兩校生 1천여명은 市街行進을 行하였다. 이들 示威學生들은 當時 禁止 曲이었던 「황성옛터」, 「아리랑」, 「양산도」, 「도라지」 등의 노래를 高唱하면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일본놈 죽여라」, 「무엇이 內鮮一體냐」, 「무엇이 東亞의 盟主냐」, 「너희들은 日本으로 돌아가라」 등을 절규하였다. 그리고 學生들은 同大會 審判長이며 慶南地區衛戍司令官 釜山地區 兵站司令官 釜山市內 中等學校 배속장교 총책임자인 日本軍大佐 乃台兼 治의 官舎를 습격하여 官舎를 파괴하고 乃台를 구타하다.⁵⁵⁾

이 기사는 이어서 헌병들이 학생 200여 명을 체포했다는 사실과 처벌된 학생들의 형량도 아울러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조선독립만세’가 외쳐진 것으로 되어 있다. 사건이 경과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조선독립만세’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다 해도 이 시기에 ‘조선독립만세’는 외쳐질 수 있었을까?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1940년대의 조선은 제국과 식민의 논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당시의 부산은 ‘식민지 청년들이 경험해야 했던 제국/식민의 모순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대두’⁵⁶⁾하고 있기도 했다. 또한 부산

55) 『동아일보』, 1940년 12월 28일. 묘하게도 경상남도 경찰부장이 담화를 『매일신보』에 발표한 날짜와 겹친다.

56) 다음의 구절은 시사적이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의 확전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변화함으로써, 부산은 대동아공영권 확대를 위한 병참기지의 기점으로 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특히 부산항을 통한 수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철도, 항만 등의 도시 인프라가 새롭게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병참기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1940년대 이래 주요한 군수부대와 방공대가 배치되었다. 중략-일본으로 가는 노동이민이 집결하는 장소이자 일본 유학을 떠나는 청년들이 모여들었던 부산항은 이제 징용으로 끌려가거나 지원병으로 전장에 나아가는 식민지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그것이 부산이라는 장소가 식민지 청년들이 경험해야 했던 제국/식민의 모순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대두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허병식, 『식민지의 접경, 식민주의의 공백』, 『한국문학연구』 4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26~28쪽.

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이후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병참기지 대륙 루트의 기점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군사적 성격을 강화하는 시가지로 변모되어 가고 있었다.⁵⁷⁾ 그러므로 부산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식민화된 도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공공연하게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이오 켄시의 의문도 여기서 비롯된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억압과 모순이 극심할수록 그에 대한 불만은 더욱 큰 잠재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1940년 당시의 부산이 전시체제 하의 병참기지로 변해가면서 제국/식민의 모순을 대변하는 공간이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에 대한 불만이 내부적으로 날이 갈수록 증폭되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불만은 특정한 계기만 주어지면 언제든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장 제국적이고 식민의 논리로 가득 찬 현장에서 터져 나왔던 것이다.

정황적인 상황으로 보아도 학생들이 ‘조선독립만세’를 불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천황을 모독라고 기미가요를 훼손해버린 학생들이 ‘조선독립만세’라고 외치지 못했을 개연성은 적기 때문이다.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일종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국방경기대회가 진행된 운동장에서가 아니라 가두행진을 하면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는 것이다. 『乃台事件回想錄』에서의 기록이 그렇고, 『釜山學生事件正史』의 기록도 그렇고, 문인잡의 『노다이(乃台) 事件의回顧』에서도, 동아일보의 1940년 12월 28일의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고 가정할 때 그 현장은 <1940년 부산>에서 B의 회고처럼 부산공설운동장이 아니라 가두 행진했던 거리였을 가능성이 한층 크다고 할 수 있다. 운동장에서

57) 이에 대해서는 김경남, 『1930·40년대 전시체제기 부산 시가지계획의 군사적 성격』, 『한일관계사연구』34, 한일관계사학회, 2009, 267~307쪽 참조.

의 항의와 구호 등으로 학생들은 이미 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그들은 가두행진을 하면서, ‘일본 놈(왜놈) 죽여라’, ‘일본 놈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아리랑, 황성옛터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일본인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폭행을 하는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그들의 증폭된 감정이 ‘조선독립만세’로 터져 나온 것이지 않을까?⁵⁸⁾

그런데 그들이 외친 ‘조선독립만세’의 성격은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당시의 학생들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해서 그들의 목표가 ‘조선의 독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독립’은 구한말부터 대한제국시기, 식민지를 거치는 동안 끊임없이 외쳐져 왔다. 독립신문, 독립문 등에서 보듯이 근대 초기는 독립된 국가 건설이 최대의 과제였고, 식민지로 전락함에 따라 ‘독립’은 더욱 절박한 과제였다. 이와 같은 바람이 가장 극적으로 터져 나온 순간이 3·1운동이었을 것이며 이 당시 ‘조선독립만세’는 문자 그대로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조선의 독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때, ‘조선독립만세’는 외쳐지기 힘들다. 그래서 1920년대를 지나 1930년대, 1940년대로 갈수록 ‘조선독립만세’는 수면 아래로 잠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독립만세’는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 일종의 상징성을 획득하지 않았을까? 일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1940년대에 이르면

58) 이렇게 본다면, B 즉 후루자와 아츠로(古澤敦郎)가 폐회식에서 ‘조선독립만세, 천황제 타도, 침략전쟁을 그만두라’는 구호가 일사불란하게 터져 나왔다고 기억하는 것도 정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관객석에 앉은 모든 학생들이 입을 모아 구호를 외쳤다면, 이는 후루자와가 추측하는 것처럼 “목표를 명확하게 드러낸”(103쪽)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투쟁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독립만세’라는 구호가 폐회식이 아니라 가두 행진에서 터져 나온 것이라면 이 구호는 후루자와가 사후에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후루자와의 이 기억 역시 앞뒤가 뒤섞인 것이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재구성되어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독립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때의 ‘조선독립만세’는 구체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구한말 이후 계속해서 부르짖어 왔던 ‘조선독립만세’가 저항의 상징적인 구호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노다이 사건에서 ‘조선독립만세’는 우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고, 불공평한 심판에서 비롯된 학생들의 불만이 제국과 식민의 논리를 희화화하고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공격적인 형태로 드러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저항의 상징적인 구호로 ‘조선독립만세’는 외쳐졌을 것이다.

4. 식민과 반식민의 해방공간, 1940년의 부산

1940년 11월 23일, 부산공설운동장과 부산부내 거리 곳곳에서 여러 가지 구호들이 난무했다. 노다이 저택의 현관과 외등을 부숴버린 돌맹이처럼, 이 구호들은 부산부내의 여기저기 날아다녔다.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라는 전쟁 형식의 지극히 제국적인 시합에서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에 격앙된 동래중학교와 부산제이상업학교 학생들은, 천황을 모욕하고 기미가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편,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일본인들에게 돌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극도로 증폭된 그들은 마침내 가장 당시로서는 가장 위험하고 급진적인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사건을 형상화하고 있는 일본인 작가 이이오 켄시의 <1940년 부산>은 이런 모습을 극도로 지워버린다. 그는 ‘논픽션 노벨’이라는 장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사 전략을 동원하여 1940년 11월 23일, 부산에서는 치기어린 학생들의 작은 소란이 있었을 뿐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 1940년의 부산은 식민성과 제국의 논리로만 가득 찬, 그들의 추억이 아름답게 서린 낭만의 공간일 뿐이었다. 그들의

기억 속에 부산은 ‘조선독립만세’가 외쳐져서는 안 되는 식민지의 한 도시일 뿐이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 불어 닦친 역사 수정주의는 그들이 이른바 ‘기억을 암살’하는 논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의 부산은 대륙병참기지의 출발점으로써 재편되어 가고 있던 가장 식민화된 남쪽의 항구 도시였다. 그만큼 식민의 모순은 팽배했고 불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팽팽하게 응축되어 있었다. 이 불만들은 특정한 계기만 되면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었고 그 계기가 된 것이 이른바 ‘노다이 사건’이다. 물론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라는 명칭이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대회는 제국과 식민의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고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 간의 경쟁으로 이런 논리를 내면화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했다. 그러나 불공정한 심판으로 대회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이 때문에 서로 모순되기도 하고 양가적인 성격을 지닌 구호들이 학생들의 감정 증폭에 따라 무질서하게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정정당당한 심판을 요구하기도 했고 내선일체를 제대로 실천하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천황을 모욕하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훼손해 버렸으며 당시 심판장이었던 노다이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일본(인)에 대한 반감도 여과 없이 폭발시켰다. 급기야 그들은 저항의 상징적인 구호인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가를 행진했고 노다이의 저택에 돌을 던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들은 맺혔던 응어리를 풀고 통쾌한 기분을 느끼면서 한바탕 신명나는 축제의 마당을 만들었다.

역사적 사실은 대체로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때때로 모순되고 양가적인 가치들이 혼재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1940년 11월 23일, 대륙을 잇는 병참기지의 출발점이었던 부산 공설운동장과 거리 곳곳에서 외쳐졌던 구호들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제국의 억압과 식민의 논리로 가득 찼던 부산에서, 전쟁 형식을 띤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라는 경

기대회에서, 불공정한 심판에서 비롯된 학생들의 항의와 가두행진은 억눌렸던 분노의 표출이기도 했고 제국과 식민의 모순이 만들어낸 극적인 시위였다. 1940년 11월 23일의 부산은 식민과 반식민이 공존하는, 모순되고 양가성을 띤 구호들과 돌맹이가 난무하는 혼란과 걱정의 해방공간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동래고등학교 동창회보』, 2007년 8월 1일.
군봉별책특집, 『乃台事件回想錄』, 1964.
다나카 히데미즈, 유은경 역, 《취한 배》, 소화, 1999.
부산학생사건정사편찬위원회, 『부산학생사건정사』, 아성출판사, 1967.
이병주, 《관부연락선》상·하, 기린원, 1980.
이이오 켄시(飯尾憲士), 《1940年 釜山》, 문예춘추, 1995.
『군봉』40, 동래고등학교, 1992.
『동고 19기 망월회상록』, 문성출판사, 1990.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동래고등학교동창회, 2002.
『동아일보』, 1940년 12월 28일.
『매일신보』, 1940년 12월 28일.
후루자와 아츠로(古澤敦朗), 「五十年前、釜山で」, 『世界』512, 岩波書店, 1988. 3.

2. 논저

- 강대민, 「노다이 사건 구술 재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4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215~248쪽.
강대민, 「부산지역 항일 학생운동의 성격」, 『항일 학생운동의 재조명』,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0.
강대민, 『부산지역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2003. 190쪽.
구모룡, 「부산 : 식민도시와 근대도시를 넘어서-부산연구의 문화론적 연구」, 『인천학연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8. 3~32쪽.
김경남, 「1930·40년대 전시체제기 부산 시가지계획의 군사적 성격」, 『한일관계사연구』34, 한일관계사학회, 2009. 267~307쪽.

- 김석희, 『일제말기 부산의 항일운동-부산동래고등학교사를 중심으로』, 『군봉』40, 동래고등학교, 1992. 85~92쪽.
- 김인호, 『1940년 부산 11·23사건의 사회경제적 기초』, 『한국민족운동사 연구』7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187~232쪽.
- 김인호, 『부산 11·23 사건, 민족과 항일의 울타리를 넘어서』, 『항도부산』26,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0. 1~42쪽.
- 김형목, 『1940년 부산항일학생운동의 민족운동사상 의의』, 『문화전통론집』14,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243~258쪽.
- 남송우, 『부산 지역문학 속에 나타난 부산성의 모색』, 『인문사회과학연구』6,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6. 73~86쪽.
- 문인갑, 『<노다이(乃台) 사건>의 回顧』, 『부산교육』194, 『부산시 교육위원회』, 1978. 8~12쪽.
- 부산학생항일의거기념논집 편찬위원회, 『부산학생항일의거의 재조명』, 계림, 1992.
- 사예구사 도시카스 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127~151쪽.
- 이경, 박훈하, 김용규, 『문화의 풍경, 이론의 자리』, 비온후, 2003. 224~226쪽.
- 정찬영, 『3·1운동과 5·4운동의 문화론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38,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309~328쪽.
- 정찬영, 『한국 증언소설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00. 26~27쪽.
- 조갑상, 『소설로 읽는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8.
- 조덕송, 『日末抗日學生運動-釜山第二商業學校事件, 光州高普第二學生事件, 大邱師範學生事件』, 『사상계』, 1964년 11월. 82~90쪽.
- 허병식, 『식민지의 접경, 식민주의의 공백』, 『한국문학연구』4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7~32쪽.
- 『부산독립운동사』, 부산지방보훈청, 1996.

『항일 학생운동의 재조명』, 경성대학교부설 한국학연구소, 2000.

오카 마리, 김병구 옮김, 『기억, 서사』, 소명출판, 2004, 23~24쪽.

오쿠마 에이지(小熊英二), 『<日本人>의境界-沖繩・アイヌ・台湾・朝鮮
植民地支配から復帰運動まで』, 新曜社, 1998. 427~434쪽.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외, 『總力戰下の知と制度1933-55年』1, 近代日
本の文化史7, 岩波書店, 2002. 258~294쪽.

<Abstract>

Colonialism, Decolonialism in 1940, *Busan*

Lee, Jae-bong

The Second National Defense Tournament was held at Busan Public Stadium in Nov. 23, 1940. Busan High school, which was Japanese School, won the championship in this tournament by an unfair judgement, and it made the students from Joseon School—Dongrae High school and Busan Commercial High school II—furious. The furious students reacted against this result, and attacked Colonel Nodai, Kenzi's mansion shouting some slogans. Almost 200 students were arrested, 15 received criminal penalty, and 65 were expelled or suspended from school for so-called 'Nodai incident',

Lee, Byeong-ju mentioned this incident shortly in *Gwanbu yeollakseon(Gwanbu Ferry)*, and no other works in Korea described it. In this point of view, *1940, Busan* written by Japanese writer, Iio, Kensi is worth of notice. Iio traced the truth of 'Nodai Incident' by presenting Kagaya and character A. A had his doubt about *Witness the Independence Movement* written by B, his Busan High School Classmate. He looked for several circumstantial evidences and collected testimonies of people who were concerned in this incidence, and then concluded that it was just a small noise even without shouting 'Joseon Dongnip Manse(Hurray the independence of Joseon)'. Iio made best use of the feature of non-fiction novel by enumerating historical facts and using letters to strengthen his logic. As a result,

Busan, of the time, was just a beautiful colonial space that was filled with memory and romance of their school days. This kind of attitude is not different from Japan's so-called Historical Revisionism after 1990's; It can be said to be 'assassinating the memory' by reducing/deleting or over-interpreting the 'memory' on purpose.

A historical fact cannot be defined by few words. There was another possibility that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National Defense Tournament were to be exposed to imperialism and colonialism and to internalize it without realizing because the tournament itself was full of the logic of imperialism and colonialism of war. The protest and the protest marches of the students started from an unfair judgement developed the incident to unexpected direction, and the slogan that students shouted was a complex one which was full of contradiction and ambivalence. They sometimes shouted uncritical slogan against the logic of empire, but they also insulted the emperor of Japan and damaged Kimigayo. Amplified feelings during this made students shout 'Joseon Dongnip Manse (Hurray the Independence of Joseon)' that can be said to be the most dangerous and radical action at that time. Considering this point of view, 'Nodai incident' which was happened in Nov. 23, 1940 was a dramatic incident that the contradiction between imperialism and colonialism drove. Busan on that day was a place of festival where people expressed their suppressed feelings and rage on one hand, and also was a place of liberation with passion and disorder where colonialism and decolonialism coexist and was filled with contradictory and ambivalent slogans on the other hand.

Key Words : Busan, Nodai Incident, <1940, Busan>, Colonialism, Decolonialism, Joseon Dongnip Manse(Hurray the independence of Joseon), Historical Revisionism, Memory, Festival, Place of Liberation

■ 논문접수 : 2014년 11월 14일

■ 심사완료 : 2014년 12월 18일

■ 게재확정 : 2014년 12월 19일